

豫報의 質 높으려면 「氣象廳」설치해야

社團法人으로 재출범 — 學會활동 강화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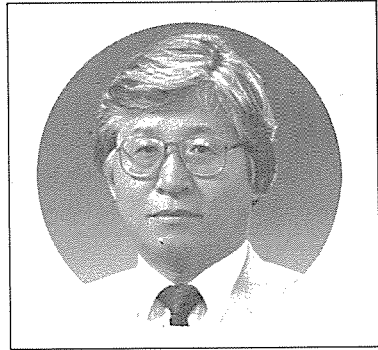
『흔히들 氣象學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氣象豫報의 범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氣象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관한 각종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기여함은 물론 人類生活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상조절과 기후개조연구 및 파괴되어가고 있는 地球대기의 보존에 이르기까지 기상학의 연구영역은 점차 확대·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韓國氣象學會 金正禹회장(연세대 천문기상학과교수)은 기상학이 종래에는 지구의 대기만이 주요연구대상이었으나 현재는 화성이나 금성따위의 대기도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大氣科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경향이라고 소개한다.

이 대기과학이라는 용어는 1962년 美國기상학회가 「대기과학」이라는 題號로 학회지를 내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기상학과」를 「대기과학과」로 개칭하거나 점차 개칭하려는 추세라고.

金회장은 서울대학교에 1958년 천문기상학과가 설치된 이래 75년 천문학과와 기상학과가 분리되었고 86년도에 다시 대기과학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는 대기과학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학문체계라는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사실 기상학은 인간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오랜 세월을 통해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등으로 인해 해결이 안되는 여러 難題들이 많아 과학중에서도 非精密科學이라는 의식이 지배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나라 기상학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왔음



◇ 金正禹회장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군요』 金회장은 이탈리아에서 발명되기 2백여년전인 1441년 이미 測雨器를 만들어 농사에 이용하는 등 氣象觀測에 앞섰던 나라로서 귀중한 관측기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과학기술을 도외시 해온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先進國에서는 기상학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첨단과학기술분야 못지 않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도 과감한 지원하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의 뒷전에 밀려 등한시해 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국가시책으로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얼마전 中央氣象臺에서 새로운 기상위성 수신장비를 도입, 그 가동식을 가진 바 있는데 첨단장비의 보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 장비를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金 회장은 제 아무리 좋은 장비를 보유했다라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므로 우수한 기상전문가 양성, 확보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를위해 학회에선 중앙기상대를 「氣象廳」으로 승격하고 기상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고.

『2년전 우리나라에 커다란 災難을 안겨주었던 태풍 셀마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마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연평균 2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기상대의 현재제로는 豫報의 質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건의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金회장은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이 같이 밝히면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상기후변동과 생태계 변화 ▲기상정보의 활동분야가 국민개인의 생활분야에 까지 확대되는 등 기상업무가 단순한 일기예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기능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나 행정조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 기상청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기상문제는 이제 氣象人의 차원에서 벗어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요.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면 3년 내 인류가 멸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상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야 되겠습니까』 金회장은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육성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학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올해 학회의 당면과제는 社團法人體로 재출범하는 것입니다. 지난 63년 창립 이래

26년동안 우리나라 기상학발전에 밀걸음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지만 法人體로의 전환을 계기로 학회활동이 더욱 강화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金회장은 앞으로 國際의 수준의 학술연구활동의 진작뿐만 아니라 선진의국과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최근 세계 기상학계 연구흐름이 기후체계의 연구와 악기상연구, 대기화학연구등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도 이들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대통령도 “우리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한 환경보존체계에 관한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고도화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활동의 급속한 증가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미 대기 및 해양의 오염과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결과를 야기시켰고 나아가서는 생태계의 기존질서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역작용을 가속화시키고 있지요. 특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의 속출은 인류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重大事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金회장은 우리나라도 환경감시체계의 확립과 이를 위한 환경감시탑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대륙이나 시베리아등지의 산업개발에 따른 영향평가작업과 함께 서해안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우리의 氣象學도 기상예보에만 급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생활과학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며 더욱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金회장은 학회가 앞장서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상분야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토록 하는 한편 先進氣象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 <權光仁 記>